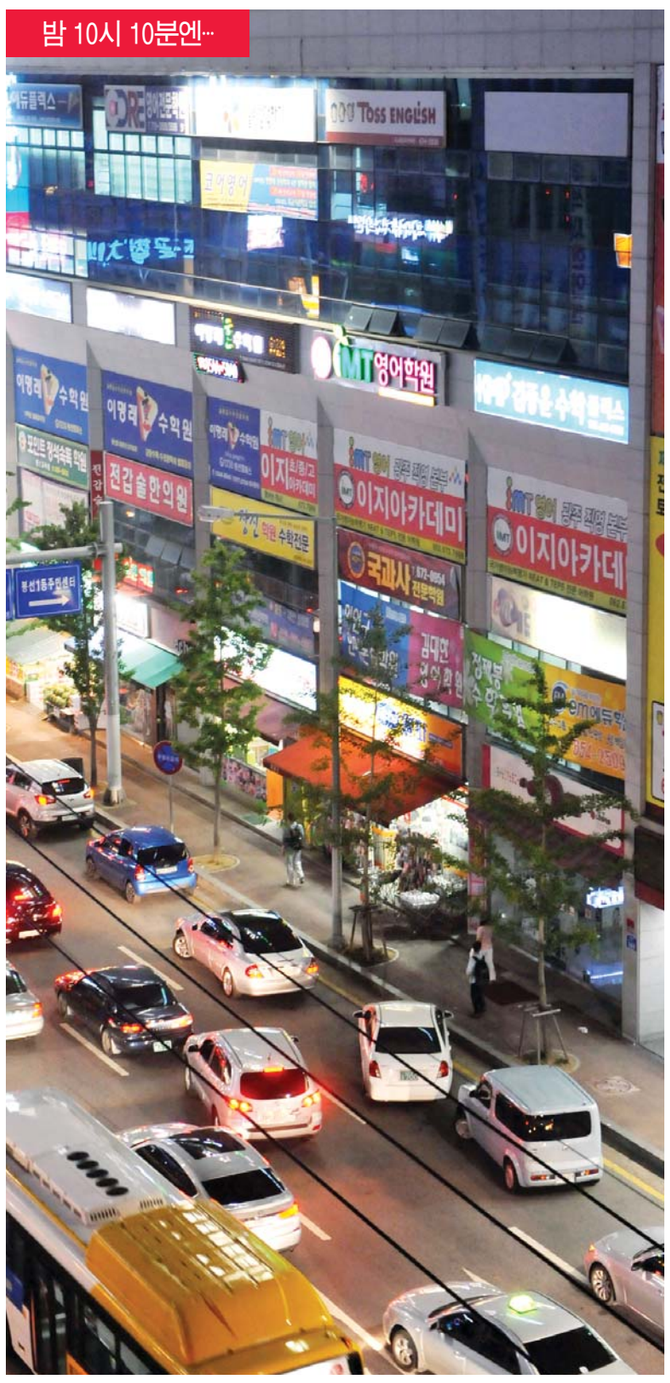
밤 10시 10분엔…



밤 11시 30분엔…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 직후인 지난 1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학원가는 겉보기에 한산한 모습이었다. 학원들은 밤 10시 무렵 일제히 불을 끄고 문을 잠궜다. (위) 하지만 같은날 밤 11시30분께 일부 학원에서 '밀실수업'을 마친 고교생들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한 심야 교습시간을 무려 1시간30분 넘긴 시점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 2대 핵심정책 '무상급식'·'학원심야교습 제한' 살펴보니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시행한 가장 큰 정책변화는 무상급식의 확대와 학원교습시간 제한 전면 실시다. 광주에서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친환경 급식 확대 등 식단의 질 높은 변화를 요구하는 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에서도 시 지역을 제외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이 76.6%대에 머무는 등 예산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각각 3월과 2월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학원교습 시간을 단축했지만,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식단' 만들고 싶어도… 한끼 200원 보조금으론 한계

예산에 발 묶인 무상급식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47개 국공립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수혜인원은 모두 11만명이다.

시교육청, 광주시, 자치구 등이 올해 예산 503억원을 출연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의 학생 1인당 평균 급식 단가는 2497원으로 한끼에 반찬 3~4개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급식단가에 포함된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가 고작 200원에 불과하다.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선 학교 영양사들은 입을 모은다. 친환경 식자재의 경우 계절별로 가격진폭이 큰 데다 구입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환영하면서도 식단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감안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기존 쌀 구입비와 친환경 식자재 구입 비용을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친환경 쌀의 경우 구입가격이 시중유통 되는 쌀보다 가격이 높아 현재 확보한 예산 56억여원으로는 사업시행에 한계가 있다. 친환경쌀의 경우 시중가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탓이다. 차액을 광주시, 5개구 지자체와 분담해야 하는 데 자치구의 재정이 한계에 달해 있다.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재원 503억 가운데 자치구 분담액이 50억원 이지만, 현재 시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은 38억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도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어 친환경 급식의 단계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재정난 때문에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에 어려움이 있어 3월부터 무상급식을 읍 단위 이하 유치원, 초·중학교 전체, 학생 100명 이하 고교 등 모두 1002개 교로 확대했다. 무상급식 수혜자는 9만6003명이다. 총 소요예산은 524억이다.

이는 지난해 읍 단위 학생 100명 이하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인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남의 경우 시 지역을 제외한 3월 현재 학교급별 무상급식 비율은 초교 76.6%, 중학교 78.6%, 고교 19.2%이다. 시 지역에서는 목포와 광양에서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난은 공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도 걸림돌이 됐다. 지난 3월 '전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되돌려 보내진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오는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도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대책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지원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초 조례안에는 유치원이 없었으나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유치원을 포함시켜 도내 455개 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오는 2013년에 실시되는데 아직 관련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만 먼저 만들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끝에 조례 제정이 보류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사업비를 지자체와 공동분담해야 하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좀더 무상급식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0시넘자 셔터 내리고 강의 교육청 "단속 사실상 어렵다"

겉도는 학원심야교습 제한

◇**광주**=지난 3월부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초·중·고 대상학원 전체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묶었다.

그러나 학원·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할 담당 교사와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도·단속 대상 학원(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이 7659개에 달하지만 본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해당 업무 담당자는 불과 10여명에 그치고 있다. 1인당 무려 700곳을 맡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밤 10시인 교습시간을 어겨도 학부모·주민들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모둠형 비밀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밤 10시에 학원문을 닫고 별도 장소로 학원강사가 모텔 등으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업무 담당자들에게 불법 학원 교습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학원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은밀하게 학습을 해도 단속반이 위반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말이 지도단속이지 현장에 출동해 불법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불법 교습현장을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지난 2월부터 초·중학생 대상 학원은 밤 10시, 고교생은 밤 11시50분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지도·단속 대상 학원은 무려 6453개(학원 3032개·교습소 733개·개인과외 교습자 2688명)에 달한다.

전남 22개 지역교육지원청은 현장단속과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교습시간을 어기거나 불법영업하는 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별로 학원 지도업무 담당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음성적인 과외나 규정 시간을 어겨 교습이 이뤄져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순천과 목포·여수 교육지원청에 단속보조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고질적인 인력한계 때문에 학원 전체를 상시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남에서는 사실상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치가 사문화돼 단속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고 3학생들이 밤 11시50분까지 교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밤 12시까지로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2시간 앞당긴 내용을 담은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거부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초·중·고교생의 학원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결국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안은 초·중학생의 경우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50분으로 예전보다 불과 10분 앞당겨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서 굴욕을 당한다

골프여행 전문家 스피드 골프 투어 VIP 초청 고객 사은행사

기간 : 2011년 6월 21일(화) ~ 22일(수) 1박2일

1인 ₩399,000

호 텔 : 특급 오션스위츠 호텔 2인1실

골프장 : 1일) 블랙스톤CC 18홀 2일) 엘리시안CC 18홀

포함사항 : 광주↔제주왕복항공료, 호텔, 식사(호텔조식), 현지차량료, 그린피2회, 유가할증료
불포함사항 : 전동카, 캐디피, 중식/석식.

일 자	지 역	교통편	일 정	식 사
21일(화)	광 주 제 주	OZ8141	★출발 1시간 전까지 도착하셔야합니다. 광주출발(08:30) -〉 제주도착(09:15) 제주도착 후 골프장 이동 블랙스톤CC 18홀 호텔투숙 및 자유시간 숙 소 : 오션 스위츠 호텔 2인1실	중:불포함 석:불포함
22일(수)	제 주 광 주	OZ8148	호텔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엘리시안 CC 18홀 공항 이동 제주 출발(19:10) - 광주 도착(19:55)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이나 항공편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협찬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스피드 골프 투어 062)382-8201 김경호 팀장 010-3613-7810